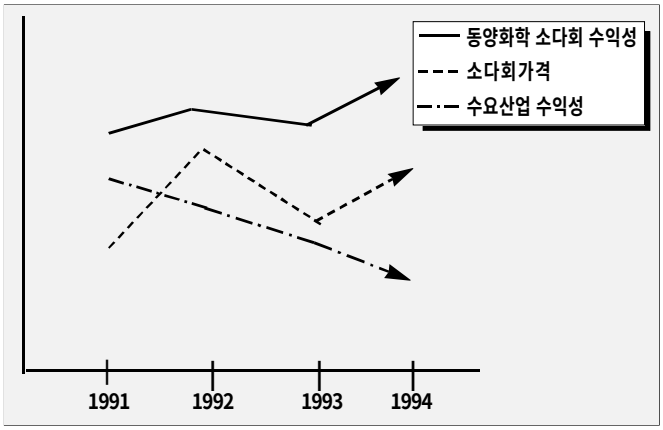
소다회 덤핑판정의 이해득실

중국산 소다회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가 확정됐다.
재무부는 12월3일 중국산 소다회에 대해 66.1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최종 확정했다. 또 일본산 PS인쇄판에 대해서도 24.51~33.1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소다회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는 예정보다 2~3개월 늦어진 것이기는 하나 예상보다는 높게 나타나, 제소자인 동양화학 입장에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대수요처인 유리산업에는 원가를 상승시켜 경쟁력 약화를 초래, 상당한 타격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중국산 정제인산에 이어 소다회에 대해서 까지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 무역역조로 수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중국의 기분(?)을 상하게 해 혹시라도 타제품의 중국 수출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기도 하다.
혹시라도 중국측이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산 석유화학제품에 대해 덤핑 운운하면서 수입을 규제할 경우, 국내 석유화학 산업계는 공급과잉과 가격폭락의「최악」상황에 수출까지 막히는 상상할 수 없는「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륙적 기질의 중국이 금새 발끈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안심만을 하고 있을 처지는 안되는 것 같다. 다만 중국측이 한국산 석유화학제품 수출공세 덕분에 값싼 제품을 수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산 수입을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이 서는 것은 사실이다.
여하튼, 우리는 지금 중국산 소다회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해득실을 따져볼 필요도가 있는 것 같다.



제소자인 동양화학의 주장대로라면 중국산 소다회가 물밀듯이 수입됨으로써 공장가동률이 73.1~82.7%선으로 낮아지고 가격까지 하락, 소다회의 사업 타당성이 극히 나빠진 것은 사실이다.
또 이를 방치할 경우 연간 수입물량이 10만톤을 넘어서 미국 ANSAC과 더불어 국내 소다회시장의 3대 메이커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될 경우 동양화학은 가격 주도권을 상실, 소다회 사업을 더이상 영위할 수 없을 정도가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국내 유리산업 등 수요산업은 일정한 틀이 없는 원료 공급선 및 가격 진폭으로 경쟁력이 극히 악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싼 가격으로 수익성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후자의 가능성보다는 전자의 가능성이 우세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는 소다회라는 기초 화학제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ANSAC(두산상사 수입)이라는 괴물이 지금과 같은 가격으로 공급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공급을 조정하면서 가격을 서서히 인상, 국내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고, 동양화학의 재가동을 견제하면서 수익성을 강화할 것이 틀림없다. ANSAC과 두산의 공급라인이 결국 국내 산업에 유리하지 않을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부정적 요인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소다회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의 문제점 또한 심각히 거론돼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즉, 동양화학의 사업성 악화 주장에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동양화학이 소다회 사업을 영위한 지는 수십년으로, 그들의 공장 개보수 및 물류비 상승 요인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감가상각이 거의「제로」상태인 공장을 가동하면서 톤당 10~20달러 하락을 운운하고 그것도 국제가격에 비해 훨씬 비

싸게 판매하면서, 공장가동률 73~83%를 유지하면서 채산성이 떨어진다고 아우성치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
일예로, 선진국에서는 공장가동률을 80%만 가동할 수 있으면 아주 좋고85% 이상이면 수익성이 최대에 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물며 80%안팎의 가동률을 가지고 수입을 규제하지 않으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엄살에 엄살을 부리는 것은 누구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것도 일년에 20여만톤이상 수입되는 ANSAC은 그대로 놔둔채...
결론적으로, 수출에 힘을 쏟기 보다는 무절제한 수입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선경의 사업자세에도 문제가 있지만, 동양화학의 주장 또한 억지이상의 것은 아닌 것이다.

동양화학은 설득력을 갖춘 해명을 해야 한다는 점 강조해 둔다.

<화학저널 1993/11/1>